

2) 모후산(母后山)

모후산은 무등산에서 백아산으로 뻗친 호남정맥에 딸린 산으로, 조계산이 여성적이라면, 모후산은 남성적이며 경사가 급하다. 조계산이 884m의 표고인데 모후산은 919m이다. 순천의 주암면·송광면, 화순의 남면·동북면에 걸쳐 있다. 대광사(大光寺:조선 말기에 폐사)와 유마사를 안고 있고, 48암자터가 있다고 하니 조계산에 못지 않게 불심이 충만한 산이다.

우리말 이름은 '무구산'이며, '무수산(無愁山)'이라고도 한다. 또 나복산(蘿菴山)이라 부른 적도 있고, 모후산(母垢山·母後山·茅後山)으로 표기한 기록도 있다. 산은 하나인데 이름이 많은 것은 동북 쪽에서 부르는 이름과 송광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우리말 이름에 한자로 옷을 입히면서 기록자의 뜻에 따라 뜻옳음을 하기도 하고 소리옳음을 하기도 하였다.

'무수'는 전라도 방언으로 '무'를 뜻하며, 더러는 '무시'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뜻옳음 해 무를 뜻하는 나(蘿)자와 복(菴)자를 써서 나복산(蘿菴山)으로 표기했고, 기묘명현 최산두(崔山斗)가 동북으로 귀양와서 나복산인이라고 호(號)를 삼았다. '무수메', '무시메'를 나복산으로 뜻옳음 했는가 하면, 무수산(無愁山)으로 소리옳음 하기도 했다. 또한 송광사 어느 스님이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모후산 암자에서 수도하다 말고 과장에 나가 장원급제를 해서 어머니의 근심을 없애주었기 때문에 무수산이라 이름했다는 촌로들의 풀이도 있다. 모후산 기슭에 송광면 후곡리(后谷里)가 있다. 노인들은 지금도 후곡을 '모실'이라 부르는데, 이 마을이름과 산이름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 '모실메', 곧 모실마을 뒷산이란 뜻으로 '모구산'이라 불렀음직하지만 이건 필자의 사견일 뿐 객관성이 없다.

'모구산'의 기슭 마을이라고 '모구실'이라고 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 유마사 골짜기 사람들이 일제시대까지도 후곡을 지나 대곡장(낙수장)을 갔는데 말거리재를 넘노라면 두 시간 남짓 산속길을 걸어야 한다. 짐승은 많고 새벽 장길이라 무서워 언제나 마을이 나타날까 하고 조이면서 길을 걷다가 마을이 나타나면 '모실이다'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후곡은 바로 그 마을이다. 그런데 '모실'은 전라도 사투리로 마을이라는 뜻이므로 '모실이다' 하는 말은 '마을이다'하는 뜻이니, 모후산과 연관되어 생긴 이름이 아니라 그저 보통명사일 뿐이다. 지명은 원래 보통명사였다. 그래서 같은 지명이 수없이 많다.

후곡에서 보성강을 건너면 한실마을이 나온다. 지금은 주암호에 수몰되어 버렸지만 '큰 마을'이란 뜻으로 '한실'이라고 불렀으니 보통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후곡은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붙인 이름이니 모후산 계곡의 마을이란 뜻이다. '모구산'을 소리옳음 해 한자의 옷을 입힌다면 모구산(母垢山)으로 써야 할 텐데, 모후산(母后山)으로 쓰여졌다. 그 까닭이 『동북읍지』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본래 나복산은 동북현의 동쪽 15리 읍내면 유치(누룩재) 남쪽에 있다. 송치에서 남쪽으로 순천부의 경계를 지나 운열령으로 뻗어 있고 산세가 험차고 빼어나다. 고려 공민왕이 여기서 난을 피하여 덕이 마치 어머니와 같다고 모후산이라 이름했다. 보충산의 동쪽에 대(臺, 송광면 왕대)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왕이 살던 옛터라고도 하고, 안구승(安丘丞)과 김도(金濤)가 이 산에 숨어 살던 곳이라고도 한다.¹⁾

이 기록을 믿는다면 산이 어머니처럼 품에 안고 보호해 난을 피하게 해주어 모후산이라고

1) 『동북읍지』, 1915, 광주일보 도서관 소장.

공민왕이 이름지었다고 할 수 있다.

또 1888년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이 왕대마을 뒤에 있는 초연정(超然亭)에서 제자 40여 명과 시회를 열고, 이곳을 초연정이라 이름 지은 사실이 있다. 이때의 시를 기록한 조준섭(趙俊燮)은 문집 『초연정 사실』에

중고에 이르러 국왕이(시골 사람들이 공민왕이라 일컫는다) 여기서 병란을 피했다.

고 기술했고, 초연정 계곡의 바위에 왕대사적(王臺事蹟)이 새겨져 있다.

마을이 어찌 왕대인가? 옛날 왕이 여기에 난을 피해 잠시 머물다 돌아가셔서 왕대라 이름했다. 왕개대는 모후산 주록 아래에 있으며, 왕대 위에 정기터가 있다. 옛날에는 왕대 남쪽에 상동이 있었고, 왕대 아래 수청교가 있었으며 수청교 아래 유경이 있다. 마을이름과 사적은 믿을 만하지만 국사와 읍사에 전하지 아니하니 한탄스럽다.

구전해온 전설을 채록해 기록하여 바위에 새겨두면서 국가의 역사책에 군왕피병설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주암면 용문리(대광사터)에 전해오는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후산에 적멸골과 배추밭골이 있다. 1351년 고려 공민왕이 신하들과 피신하여 배추밭골의 배추로 김치를 담가놓고 밥을 지어 먹으려 할 때 왜병이 쳐들어오자 극약을 타놓고 송광면 왕대마을로 피신하였는데, 적병이 침입하여 그것을 먹고 전멸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왕대(旺垓)와 유경(留京)을 통합해 삼청리(三清里)라 하였는데, 왕대마을 바위에 수청(水淸)·풍청(風淸)·월청(月淸)이라 새겨 있다. 초연정의 주인 조진충이 새겼는지, 또 다른 누가 새겼는지 모르나 이 명문 때문에 리명(里名)을 얻었다. 마을 어귀와 눈에 돌담(적석)이 마주 서 있어 오래된 마을임을 보여주고 있다.

왕대마을 아래 유경은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이 왕대에 머무르자 서울도 따라서 옮겨왔다고 ‘유경’이라 이름했다. 노인들은 유경을 ‘이경굴’이라 부른다. 왕대에서 대광(용문)으로 가는 재를 사직재, 그 봉우리를 국사봉, 호수 건너편 신평리 뒷산을 옥녀봉이라 부른다. 낙수(洛水)마을에 낙수역과 낙수진이 있었는데, 공민왕이 피병할 때 주암의 요곡에서 역을 낙수로 옮겨왔다고 전해진다. 낙수를 낙수(樂水)·약수(藥水)로 쓴 기록도 있다.

이상의 전설과 기록으로 보아, 지방 사람들은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이 모후산에서 피병하였다고 믿고 있으나, 정사에선 경상북도 안동으로 피병했다고 기술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믿는다. 공민왕 때 안동이 복주(福州)이고 동북도 복주이기 때문에 지명이 같은 데서 연유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왕이 피병할 장소는 적으로부터 멀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동북은 고려왕실의 척족인 오씨의 터전이므로 피병처로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국왕이 피병할 때 신변의 안전을 위해 가왕(假王)을 내세워 경상도 복주와 전라도 복주에 동시에 피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안구승과 김도가 은거했던 사실을 왕이 피병한 것으로 구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김도는 공민왕 때 신하로 원나라에 들어가 제과(制科)에 급제한 실존 인물이며 죽임을 당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설과 지역 지명에 근거를 두어 전라남도에서 1990년에 초연정 일대를 기념물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다. 광주 쪽에서는 임진왜란 때 임억령(林億齡)이 어머니를 업고 이

산에 숨어서 난을 피했기 때문에 모후산이라 했다고 전한다. 아무튼 모후산은 피난지이며, 어머니 품처럼 편안히 보호해준 산이기 때문에 모후산이란 이름을 얻었다.